POLICY BRIEFING
ISSUE 20 / 2025. 5.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연구자료
연구교육 2025-07-082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원조 정책으로 인한 KOICA에의 영향과 시사점

1. 들어가며

2025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대외원조 정책은 근본적인 재편과 축소의 길로 들어섰다. 가장 상징적인 변화는 미국국제개발처(USAID)의 사실상 해체와 기능 재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1월 20일, 90일간 모든 대외원조 집행을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에 착수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3월에는 USAID가 수행하던 해외 원조 사업의 86%를 해지하고 필수 인력을 제외한 직원 대부분을 해고하겠다고 밝혔다(외교안보연구소, 2025). 5월 초 발표한 2026년 회계연도 예산안에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국무부 및 국제 프로그램(State and International Programs) 예산은 전년 대비 47.7% 감축한 312억 달러였다(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2025).

이러한 구조조정은 단순한 기관 축소 및 예산 삭감에 그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WHO 재탈퇴, 파리기후협정과 유엔인권이사회(UNHRC) 탈퇴,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기구(UNRWA) 기금 중단을 선언하는 등 주요 다자기구에서의 탈퇴와 다자원조 축소를 동반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5). PEPFAR, UNAIDS, WFP 등 글로벌 보건 및 인도주의 이니셔티브에 대한 미국의 기여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원칙 아래, 자국의 안보와 경제 이익에 직접 부합하는 분야에 한정된 상호주의적 원조만을 유지하려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예산 삭감을 넘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된 국제개발협력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변화로, 국제사회와 개발도상국들은 미국의 원조 축소에 따른 심각한 불확실성과 구조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2. 글로벌 원조 환경의 변화

미국 원조 축소의 배경

미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축소는 단지 특정 행정부의 일시적 정책 변화가 아니라, 최근 글로벌 질서 재편과 선진 공여국들이 겪는 구조적 재정·정치 환경 변화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을 포함한 주요 DAC 회원국들은 저성장, 인플레이션,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 확대 등으로 재정 압박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ODA는 정책 우선순위에서 점차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다(OECD, 2025a).

영국은 2025년 국방비 지출 확대를 위해 ODA/GNI 비율을 0.5%에서 0.3%로 축소하겠다고 공식 발표하였으며(UK Parliament, 2025),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권고 기준인 0.7%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원조를 계획 중이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주요 공여국들의 ODA는 18%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UNCTAD, 2024). 이러한 흐름은 선진국들이 국방과 이민 통제 등 자국 중심의 과제에 예산을 집중하고, 개발도상국과의 연대보다는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른 선택적 원조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재정적자 확대, 정치 양극화, 복지 및 국방 지출 증가로 인해 재정 운용 여력이 줄어드는 상황에서(The Wall Street Journal, 2025),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대외원조의 목적과 방식을 전면 재조정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일시적인 정책 변화라기보다, 재정 현실, 정치적 전환, 그리고 국제 질서의 변화라는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미국 원조 축소의 변화와 영향

1) DAC 체제 내 미국의 역할 약화와 규범 질서 변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는 공적개발원조(ODA)의 기준과 원칙을 수립하고 수호하는 국제 개발협력의 핵심 기구로, ODA는 '양허적 성격'을 지니며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복지 증진'을 주요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OECD, 2025b). 미국은 1961년 DAC 설립에 중심적 역할을 했으며, 이후 ODA 정의 정립과 개발효과성 담론 형성 등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해왔다(IDOS, 2025).

그러나 최근 미국의 원조 축소는 DAC 내에서의 규범 형성과 정책 공조 체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다자기구 분담금 삭감, 국제기구 탈퇴, 개발원조 감축 등의 조치를 통해 전통적으로 유지해온 DAC 내 미국의 역할에서 점차 이탈하고 있으며, 이는 DAC 시스템 전반의 규범 안정성과 조정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변화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달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OECD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개발도상국이 필요로 하는 연간 개발재원은 약 9조 2,400억 달러로 추산되나, 실제 조달된 외부 재원은 약 5조 2,400억 달러에 그쳐 매년 약 4조 달러의 재원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OECD, 2025c). UN도 현재 SDGs 달성을 위한 노력과 자금 규모 간 격차가 매우 크다고 경고한 바 있다(UN, 2025). 미국은 주요 개발재원 공여국 중 하나로, 미국의 원조 축소는 이와 같은 글로벌 재원 부족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또한 미국의 이탈은 DAC 체제 전반에 구조적 충격을 줄 수 있다. 세계 최대 공여국인 미국의 역할 축소는 OECD DAC를 중심으로 형성돼온 국제개발협력 규범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으며, 그동안 유지되어온 공여국 간 정책 공조 기반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5). 나아가 이러한 흐름은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다자적 공동 과제에서의 협력 역량까지 약화시킬 수 있다.

2) 분야별 및 지역별 영향

아울러 미국의 원조 축소는 특히 보건, 기후변화 대응, 그리고 아프리카·중남미 등 취약 지역에 대한 지원에 실질적인 타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보건 분야에서는 미국이 PEPFAR, 말라리아 이니셔티브, 국제백신연합(GAVI) 등 다수의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120억 달러 이상을 지원해왔으며, 2023년 기준으로 전 세계 보건 ODA의 약 42%를 차지했다(Bharali et al., 2025). 그러나 최근 원조가 중단되면서 다수 개발도상국에서 치료 클리닉 폐쇄, 예방접종 중단, 주요 감염병 대응사업 축소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The Times, 2025).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는 미국이 파리기후협정 탈퇴, 녹색기후기금(GCF) 40억 달러 공여 철회 등의 조치를 통해 국제적 재원 분담에서 후퇴한 바 있으며, 2024년 기준 약 110억 달러 규모의 국제 기후재정을 집행하고 있었다(Reuters, 2025). 이는 전체 국제 기후재정의 약 8%에 해당하며, 향후 축소 시 기후 대응 역량이 취약한 국가들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uters, 2025).

인도적 지원 및 식량안보 분야에서도 영향이 확인되고 있다. 미국은 세계식량계획(WFP)의 최대 공여국으로, 2024년 기준 WFP 전체 예산 중 약 45%를 부담했다(WFP, 2025). 그러나 아프가니스탄, 예멘 등 주요 수원국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면서 식량 배급 및 구호 활동에 차질이 발생하였다. 이후 일부 국가(레바논, 시리아, 소말리아 등)에서 프로그램이 부분적으로 재개되었으나(Reuters, 2025), 전반적인 지원 규모는 이전보다 축소된 상태다. 또한 다수의 NGO가 미국의 지원 중단 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른 활동 위축이 예상된다.

아프리카 지역은 미국 ODA의 주요 수원 지역으로, 2023년 기준 OECD 국가의 아프리카 지원액 중 약 26%를 미국이 담당했다(Africa Confidential, 2025). 대표적으로 에티오피아는 약 17억 달러, 남아공은 PEPFAR를 통해 HIV 치료를 제공받았다. 원조 축소에 따라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HIV 환자 증가, 의약품 배포 중단 등이 전망되며(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5), 일부 기관에서는 관련 사망률 증가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아프리카 CDC는 이번 충격으로 향후 매년 200-400만명의 아프리카인이 추가로 사망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Health Policy Watch, 2025).

중남미 지역의 경우 미국은 연간 약 8~9억 달러 규모의 원조를 제공해왔으며, 페루, 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등에서 식량안보, 공중보건, 환경, 치안, 거버넌스 개선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현재 일부 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되었으며, 이에 따른 영향은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3. 미국 원조 축소로 인한 KOICA에 대한 영향 및 시사점

예상되는 영향

KOICA는 그간 USAID와 가나, 에티오피아,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인도 등 다양한 국가에서 협력 관계를 구축해왔다(한국국제협력단, 2017). 최근 2024년에는 USAID 및 노르웨이 개발협력청(NORAD)이 조성한 아프리카 중소 농업기업 지원 펀드(FASA)에 5년간 125만 달러 이상을 투입하기로 약속하며, 해당 지역의 농업기업, 소작농 지원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했다(한국국제협력단, 2024).

그러나 2025년 USAID 구조조정으로 인해 양 기관 간 협력의 지속가능성에는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KOICA의 USAID 파견 인력이 철수함에 따라 실무 협의 채널이 축소되었고, 기존에 중점적으로 협력해오던 보건 및 농업금융 분야에서도 추가적인 협력 기회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제약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KOICA는 기존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며, 앞으로도 개발협력 시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변화된 원조 환경은 KOICA의 협력 전략과 대응 방향에도 재정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KOICA에 주는 시사점

ODA 규모의 유지 및 점진적 확대를 위한 성과 중심 사업 강화

2024년, 한국의 GNI 대비 ODA 비율은 약 0.21%로(외교부, 2025), 2010년 OECD DAC에 가입한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으며, 이는 한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확대와 개발도상국 지원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해당 비율은 2024년 OECD DAC 국가 평균(0.33%) 및 권고기준(0.7%)에 아직 미치지 못하여, 향후에도 ODA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KOICA는 한국 ODA 규모 유지 및 점진적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 기반을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KOICA는 성과 중심의 사업기획·수행 및 관리를 통하여 사업의 효과성과 책무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고, 향후 한국 ODA 규모 유지 및 확대의 타당성과 정당성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ODA 효과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협력 다각화

미국 및 선진공여국의 원조 규모 축소는 국제개발협력 재원의 전반적인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ODA에서 한정된 공공 재원으로 최대의 개발성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효과성·효율성 제고 요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KOICA는 기존의 양자 중심 원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파트너십을 활용한 협력 다화를 적극 추진할 수 있다. 민관협력파트너십, 혼합금융, 다자기구 연계사업 등 다양한 사업실행 메커니즘을 통해 민간 자본과 기술, 국제기구의 전문성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면, 재정 부담을 분산하면서도 사업의 파급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대국민 ODA 인식 제고와 국내 지지 기반 확충

ODA 정책의 지속성과 확대를 위해서는 국민적 이해와 지지 확보가 필수적이다. 2024년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ODA 시행에 찬성하는 비율은 77.8%로 여전히 높은 편이나, 2011년 89%에 비해 상당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예산 확대를 지지하는 응답은 19.4%에 그쳐 적극적 지지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수준이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 이러한 변화는 향후 ODA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점차 약화될 수 있으므로, KOICA는 단순 홍보를 넘어 보다 전략적인 국민 소통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는 교육 콘텐츠 개발, 디지털 기반 정보공개 확대, 수원국과의 협력성과 공유 등을 통해 국민의 신뢰와 참여를 유도하고, ODA 정책에 대한 정당성과 예산 기반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4. 맺으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원조 축소는 미국의 단독적인 선택을 넘어, 국방과 경제를 우선시하는 선진 공여국 전반의 원조보수화 흐름과 맞닿아 있다. 이러한 세계 원조 트렌드는 다자주의 기반의 국제개발협력 질서를 약화시키고, 글로벌 공동 과제에 대한 대응 역량을 저하시킬 수 있다. KOICA는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여 전략적 협력 채널을 확장하고, 성과중심의 사업관리와 국민소통을 강화함으로써 개발협력의 정당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KOICA ODA연구·교육원

[참고문헌]

- Africa Confidential. (2025). Western aid cuts reshape the geopolitical landscape. Africa Confidential.
- Bharali, I., Yamey, G., & Goosby, E. (2025). Navigating U.S. global health aid cuts: What can past donor exits teach us? Brookings Institution.
-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2025). Redefining America's interests: Trump's FY2026 budget proposes sweeping cuts to U.S. foreign aid.
- Health Policy Watch. (2025). Africa CDC: Aid cuts will result in millions more African deaths.
- IDOS. (2025). Trump's assault on foreign aid: 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 OECD. (2025a). Development finance needs major overhaul to achieve global goals.
- OECD. (2025b). ODA eligibility and conditions.
- OECD. (2025c).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2024 figures.
- Reuters. (2025a). Climate finance: Glass may still be half full.
- Reuters. (2025b). Trump administration moves to restore some terminated foreign aid programs.
- The Times. (2025). Essay by Gavin Yamey on Trump, foreign aid, and disease.
- The Wall Street Journal. (2025). Trump's 2026 federal budget proposal.
- UN DESA. (2025). FFD4 Outcome Document - First Draft.
- UNCTAD. (2024). Trade and Development Foresights 2025: Under Pressure-Uncertainty reshapes the global landscape.
- UK Parliament. (2025). Research briefing: UK aid budget changes.
- 외교안보연구소. (2025).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개발협력 정책변화와 함의. 서울: 외교부 국립외교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5).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해외원조 중단이 국제개발협력에 미칠 영향과 시사점.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 [보도자료] 2024년 ODA 인식 조사 결과 보도자료.
- 외교부. (2025). 보도자료 - 24년 한국 공적개발원조(ODA) 39.4억불 지원.
- 한국국제협력단. (2024). [보도자료] 코이카-미국 국제개발처, 포괄적 개발협력 파트너십 추진을 위한 MOU 체결. KOICA 홍보팀.
- 한국국제협력단 블로그. (2017). KOICA 홍보 블로그